

[여수·순천·광양]

“남해화학, 주민 피해 보상하라”

여수 상암동 주민 700명 건강 역학조사 등 촉구
1999년 합의 지역발전기금 출연 사고 갈등 고조

여수 남해화학 인근 상암동 주민들이 지역발전기금 출연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상암동 주민 700여명은 지난 20일 남해화학 공장 정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남해화학측의 즉각적인 피해보상실시와 주민들에 대한 건강 및 신체역학조사’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상암지역의 경우 산단 주변 마을 중 유일하게 이주지역에서 제외됐고 남해화학이 근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농수산물 판매도 제 값을 받지 못하

는 등 불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1999년 석고침출수 유출사고로 남해화학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지역민들에게 합의를 작성해 주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1977년 남해화학이 들어서 이후 주민들은 농작물 피해와 함께 원인 모를 피부병과 눈병, 호흡기질환 등 공해에 시달려 왔는데도 남해화학측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남해화학은 “몇 년 사이 양

모니아와 요소 공장을 각각 매각, 철거하는가 하면 정부의 친환경 농업정책으로 인해 비료사용량이 급감하는 등 경영환경이 어려워져 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남해화학과 상암동 주민들은 지난 1999년 석고침출수 유출사고 이후 모두 3차례에 걸쳐 주민들과의 합의를 체결했으나 주민들과 이같은 의견충돌로 2003년부터 주민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해화학측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회 운영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주민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도선 선차(道說 禪茶)반 수료 제 3기 친환경농업대학 ‘도선 선차(道說 禪茶)반’ 수료식이 지난 20일 광양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개설된 ‘도선 선차반’과정은 50명이 수료했다. /광양=김춘희기자 chkim@



여수 진남로 상가가 전선이 사라지고 대리석과 점토벽돌이 바닥에 깔려 신선히게 단장됐다.

여수 진남로 멋과 패션의 거리로
전선지중화·각종 조형물 설치 새 단장

25일 준공식 맞춰 거리축제

여수시 최대 변화가인 진남로상가가 새롭게 단장됐다. 여수시는 진남로상가를 국보 제304호인 진남관과 연계하는 예술, 테마가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 오는 25일 준공식을 갖는다.

진남로 상가는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전주가 사라졌으며 도로 바닥에는 산뜻한 대리석과 점토벽돌이 깔리고 각종 조형물과 벤치, 야외무대 등이 설치됐다.

진남로상가 변화회는 25일 준공식에 맞춰 제 3회 거리문화축제를 성대하게 벌인다. 이번 축제에서는 풍선아트와 사진 촬영, 행운의 다트

던지기 등 체험행사와 분향사인 길거리 패션쇼, 즉석노래자랑, 밸리댄스 등이 펼쳐진다.

지난 83년 결성된 진남로상가분회회는 그동안 불우이웃돕기와 심장병 어린이돕기 모금할 설치, 로버트킴 돌기 길거리농구대회, 연말연시 성금 기탁, 요양원 방문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다.

김제석 분회회장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교통난 해소와 오거리 주차장 확충이 확정되면 좀더 활기를 띤 거리가 될 것”이라며 “멋과 낭만, 그리고 패션문화의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여수지역 학교서도 주민등록증 발급

시교육청-동사무소 협약

여수지역 고등학교생들은 주민등록증을 동사무소가 아닌 학교에서 발급 받게 된다.

여수시교육청은 21일 “동사무소와 협약을 맺어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여천고등학교와 부여여

사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했다.

이들 학교는 관할 동사무소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자들이 학교를 방문, 해당 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줄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은 각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학생으로 발급당일 학생증과 사진1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지참하면 된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만남의 광장’ ‘시민문화센터’ 중 택일

GS칼텍스재단 여수 공익사업 연말까지 확정

GS칼텍스가 2015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하는 공익 사업이 2개로 압축됐다. 공익법인 GS칼텍스재단은 21일 “전남 서울에서 열린 재단 정기이사회에서 여수지역에서 추진할 대표사업으로 ‘만남의 광장(Gateway Square) 조성’과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우선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GS칼텍스 재단은 여수시 등 관계기관과 부지선정 문제 등을 협의한 뒤 연말 안에 1개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재단 이사들은 만남의 광장과 시민문화체육센터 모두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한편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태 GS칼텍스재단 사무국장은 “이사회로부터 지역대표사업 선정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개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여수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여수지역의 대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선암사 내분 사태 장기화

신·구 주지측 40일째 합의점 못 찾아

재산권 분쟁과 주지명명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선암사 사태’가 40여일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장기화되고 있다.

선암사 내분은 선암사 ‘원불교전 관세음불상’ 진위 논란 사건으로 야기된 갈등이 시발점이 돼 재산권 분쟁과 함께 현 집행부(승조 스님)와 전 주지(금용 스님)측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한때 신·구 주지 양측이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을 구성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대원칙에 합의하고 3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결국 지난 3일 신도와 재직측 측이 몸싸움 끝에 종무소를 차지하며 현재까지 팽팽한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현 주지인 승조스님은 “전 주지측이 선암사 내부문제를 대화로 풀려하지 않고 신도들을 가혹한 사람들을 동원해 강연(스님들이 공부하는곳)을 뺏으려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주지측은 “총무원측이 총무원장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거부하고 협상에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30만 서명운동과 함께 총무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길기대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23일부터 3일간 돌산 갯 김치축제

제 3회 여수 돌산 갯김치축제가 ‘맛·향·인정의 어울림’을 주제로 23일부터 3일간 여수시 종화동 해양호텔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돌산 갯김치 담그기, 돌산갯 퓨전요리 경연을 비롯 돌산갯김치 담그기 체험과 퓨전요리 갯김치 시식회, 돌산갯 생산단지 견학 등 관광객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체험행사 위주로 열린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Rows list various regions and their corresponding numbers.

Advertisement for '장생·두충 오가미 식품' (Jangseong, Ducheung, Ogami Food Products). Features text about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health benefits,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products.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various properties. Each listing includes details like location,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gents.